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모바일앱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8조의 발표를 맡게 된 컴퓨터 학부 20학번 김예림 입니다.

저희 8조는 조장인 저 김예림을 비롯한 윤규원, 서기창, 박수민 조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 저희가 소개할 프로젝트는 정치성향 테스트 앱 바리바리 입니다.

원래 저희 조는 기존에 지역 국회의원의 발의안을 어플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바리바리란 이름은 발의안의 ‘발의’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어플을 만들고 웹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적용하려고 했으나, 저를 비롯한 팀원들이 방법을 찾지 못해 급하게 정치 성향 테스트 어플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의 목표는 최근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흥미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그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최근 유행하는 심리 테스트처럼 간단하게 정치적 성향 테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앱을 만들기 전 2030세대 청년 73명 대상으로 한 구글 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알고 있는가, 그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구체적 위치를 알고 있는가, 또한 정치 성향 테스트 어플이 있다면 이용해볼 의향이 있는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가’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72.6%가 알고있다. 27.4%가 모른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자세한 위치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모른다면 그 이유는 관심이 없다가 47.5% 알기회가 없었다가 45%로 조사되었고, 참여자 중 대부분인 94.5%가 만약 정치 성향 테스트 앱이 있다면 그 앱에 대해 사용 의사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어플을 실행한 후 화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어플을 실행하면, 로고 화면이 지나고 몇 초 뒤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는 총 8개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 의한 억압보다 기업에 의한 억압이 더 두렵다’ , ‘국민의 복지가 경제적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 와 같은 질문에는, 찬성, 반대, 중립 중 하나의 의견을 선택하여 자신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8개의 질문을 다 겪고 나면, 이렇게 5개의 결과 중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뷰는 먼저 윤규원 조원이 피그마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뒤, 박수민 조원이 RelativeLayout과 LinearLayout을 적절히 활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버튼을 누르면 다음 뷰로 넘어가는 등 코딩 면은 저 김예림이 맡았고, 정치적 성향 테스트 항목을 작성하고 설문 조사를 하는 일은 서기창 조원이 맡았습니다.

미흡하지만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